

명화 속 경제학 코드 찾아 그 시대 정치·사회를 읽다

행복한 책 읽기 송정림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나무생각 펴)

그림 속 경제학

문소영 지음

최근 들어 '그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책들이 인기다. 그림 속에서 독자의 역사를 읽어 내기도 하고, 종교적 의미를 분석하기도 한다.

문소영씨가 펴낸 '그림 속 경제학'은 유명한 작품 속에 담긴 경제학 코드를 매개삼아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정치적 변화까지 두루 살펴본 책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경제 전공자이다. 홍익대 미술학과 대학원을 거쳐 신문사 문화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맞춤형 필자다. 저자는 1200만명이 다녀간 네이버 블로그 '미술관 속 비밀도서관'을 운영중인 파워블로거이기도 하다. 저자는 쿠르베, 브뤼엘, 밀레 등 유명 작



가들의 그림을 매개로 중요한 경제적, 경제사적 개념과 사건들을 소개하며 저변에 깔린 정치적 변동, 철학의 흐름까지 알기 쉽게 풀어 썼다.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는 영국 작가 터너의 작품 '전함 테메레르'이다. 저자는 범선이 그보다 작은 채구의 증기선에 이끌려 최후의 항해를 하는 이 그림에 대해 새로운 기계 문명과 저무는 옛 문명의 충돌을 드라마틱한 이미지로 구현했다고 평했다.

산업혁명이 사회 전체의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클로드 모네 같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대기를 묘사하며 미술사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한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정해진다는 '노동가치설'을 설명하는 길라잡이는 밀레의 '이삭줍는 사람'과 도미에의 '3등석 기차',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이다.

또 톨립 구근 '셀페르 아우구스투스' 한 뿌리가 무려 황소 46마리, 돼지 183마리 가격과 맞먹었던 네덜란드 톨립 투기를 '톨립 광풍 풍자화' 등을 통해 설명한다. 또 무하와 로트렉의 포스터를 통해 예술 포스터가 광고와 연결되는 지점을 짚어가며 '광고는 없던 욕구를 만든다'는 겔블레이스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화려한 도판이 읽는 재미를 더하며 각 장마다 말미에 경제 용어 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이다미디어·1만6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폰스 무하의 '외즈의 맥주' 광고.

초의 동독 출신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공인 전기. 지금, 전 세계는 메르켈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진보 매체인 '취드도이체 차이퉁'의 외교정치보도국장인 저자 슈테판 코르넬리우스는 책을 통해 메르켈의 신념과 리더십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출간기념회에 메르켈 총리가 직접 참여했고, 책의 영국판은 총리실의 허락을 받아 '공인 전기'로 출간됐다.

<책담·1만6000원>

▲감정=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서로 교차할까. 십수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 왔으며 청소년 베스트&스테디셀러 '심대답게 살아라'를 비롯한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한 문지현은 '감정'에서 답을 찾는다. 책은 실제로 그가 의료 현장에서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그늘진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고 어두운 마음에 작은 불빛을 비춰준 풍부한 사례들을 함께 소개한다.

<작은씨앗·1만5000원>

새로 나온 책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 7명이 지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 책. 김신범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설립 등 7명의 필자들은 마을이 제대로 서려면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고, 더불어 다양한 힘의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양성을 마을 만들기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살창·1만3000원>

▲도그파이트=애플과 구글 두 기업이 절친한 조력자에서 철천지 원수로 돌변하는 과정, 모바일 패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공룡들 간의 음모와 배신, 소송, 기술혁신 경쟁 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을 무협소설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IT 비즈니스통인 프레드 보겔스타인이 16년간에 걸쳐 애플과 구글 최고위직을 버티며 야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실무자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



동안 보도되지 않은 일화들로 가득하다. <와이즈베리·1만5000원>

▲패자의 기억=프랑스 작가 미셸 라공의 장편 역사소설. 심부름꾼, 기계공, 주물공장 노동자, 헌책 장수 등을 거처며 삶의 폭을 넓혔고 2차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작가는 알프레드 바르텔리라는 프랑스인 아나키스트의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19세기 말부터 1968년 5월혁명에 이르는 격동의 역사와 그 현장의 한복판을 누웠던 인간 군상, 그들을 사로잡았던 이념을 엮어 실제와 허구가 넘나드는 한 편의 대하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책세상·2만1000원>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6·25 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인 이강화 장군이 겪은 6·25전쟁 이야기. 대한민국 공군정사(正史)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과 출격 조종사·작전장교로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직접 찍거나 소장하고 있는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130여 장이나 실고 있어서 주목된다. 전쟁에 잠깐 산 증인의 생생한 육성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진들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다. <플래닛미디어·2만2000원>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통일 독일이 선택한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

어린이 책

▲죽으면 어떻게 돼요?=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철학. '세상으로 나온 똥',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 줄 거야?' 시리즈가 나왔다. 미취학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자연스럽게 철학적 사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도 서슴치 않고 그림책으로 풀어내는 스웨덴 대표 작가 페르닐라 스탈페트의 작품이다. <시금치·각 권 9500원>



▲냉장고의 여름방학=겐이치네 가족을 위해 연중무휴로 묵묵히 일하는 냉장고를 어느날 수영장을 따라가겠다고 하

니 이번에는 사흘간 휴가를 달라고 요청한다. 물건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상상력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건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도록 교육까지 녹여냈다. <북뱅크·1만원>

▲엄마라서 그렇단다=아동문학가 채정미의 두 번째 동시집. 맑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시, 동요가 되고 싶어 하는 시, 생활 체험을 진솔하게 나타낸 시들이 실려 있다. 돋보이는 것은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온 듯 신기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

들이다. 맑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북인·1만1000원>

▲말을 삼킨 아이=별은 말을 되돌리기 위한 가온이와 타임조커의 시간 여행을 담은 동화. 현실과 상상의 시간을 넘나들며 가온이는 자신이 별은 말을 찾아다닌다. 다양한 말사냥꾼을 만나며 말의 성격을 알게 된다. 이야기를 통해 말살수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스픈북·9800원>



인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춘문에 동화 당선

타인은 인연이다

우울한 날에는 하늘에 기대고 슬픈 날에는 가로등에 기대다. 기쁜 날에는 나무에 기대고 부푼 날에는 별에 기대다. 또 사랑하면 꽃에 기대고 이별하면 달에 기대다. 무엇 기댄다는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스며드는 일이다. 사람과 사물과 자연에 서로 기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인연이다. 이런 인연의 덕목을 지킨다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된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다가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사람, 한계를 뛰어 넘어 도전하는 사람, 나보다 불행한 이웃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는 사람, 타인에게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푸는 사람 등 좋은 인연을 만나는 일도 내 자신의 몫이리라.

책 중간에 꼭 눈여겨보아야 할 주옥같은 철학이 담겨있다. "항해하는 결코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는 없지만 배의 돛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있다. 정원은 꽃이 피고 지는 일을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지만 꽃을 사랑할 수는 있다. 농부는 결코 자연의 섭리를 좌우할 수는 없지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가능하다. 사람은 비가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지 못하지만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힘이 임팩트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인 만큼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쯤에서 '타인은 인연이다'로 바꾼다면 어떨까. 지금 인간됨을 쓰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다면, 사랑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꿈도 열렬히 꾸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혹여 아직 참 좋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참 좋은 당신이 되어 주는 건 어떨까.

인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춘문에 동화 당선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병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3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양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역 유재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실분들
줄줄이 대기중이네요

지역이,금액이,종류가
맞지않아서요

부동산이라면
[무엇이든][지역 상관없이][금액상관없이]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뉴스,재테크 방식,건강정보
전국 세 번째이상 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금매물도있어요

- 1)금남로 오피스텔 39㎡ 6세대 땡처리
- 2)롯데영 원룸빌딩 50%금저분
- 3)대형 콜라텍 가져드립니다
- 4)화순,담양 전담,임야 판매물 많아요
- 5)대도코너 대단지입주 신풍도있어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062)229-0088

33.3% 호텔 "금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